

# 양산 지역어의 자음 음운현상\*

오 종 갑\*\*

## < 목 차 >

I. 서론	2. 동화
II. 음운체계	3. 축약
1. 음소체계	4. 탈락
2. 운소체계	5. 중복자음화
III. 음운과정과 음운규칙	6. 쌍형 어간
1. 평폐쇄음화	IV. 결론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양산지역어의 현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자음의 변화와 관련된 음운현상을 고찰하였는데, 거기에는 평폐쇄음화, 동화, 축약, 탈락, 중복자음화 등의 음운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 지역어의 특이한 현상은 표준어에서 ‘ㅊ’ 말음을 지닌 곡용어간들이 모두 ‘ㅌ’ 말음을 지닌 것으로 재구조화되어 평폐쇄음화에 참여하는 점이다. 그리고 자음탈락에서는 활용어간 말음 ‘ㅎ, ㅋ’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나, 곡용어미 ‘하고’의 ‘ㅎ’는 자음(‘ㅇ’ 제외)으로 끝난 곡용어간 다음에서만 탈락되는 현상이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음축약규칙의 적용으로 산출된 유기음과 경음만이 중복자음화됨도 밝혔다.

그리고 기존의 학설과는 달리 어간말 자음 뒤에서 어미의 두자음이 경음화되는 현상을 ?-첨가규칙과 자음축약규칙의 둘로 나누어 해석함으로써 음운문법을 명료하게 하고자 하였다.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문과대 국문과 교수

<Abstract>

The Consonantal Phonology of Yangsan Subdialect

Oh, Jong-kap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consonantal phonology of Yangsan subdialect based on the research conducted in Yangsan area.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reveals various phonological phenomena such as obstruent lenition, assimilation, contraction, deletion, and gemination.

Results show that the /čʰ/ in the ending position of the inflectional stems in standard Korean are transformed into /tʰ/ in Yangsan subdialect, and the changed stems participate in obstruent lenition. In consonant deletion, results also show that /h/ and /ʔ/ in the ending position of conjugational stems are deleted before endings beginning with vowel, whereas /h/ in “hako(하고)”, an inflectional ending, is deleted only when it follows inflectional stems which end with consonant(except for /ŋ/).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among aspirates and glottals, those produced by the application of the consonant contraction rule alone are geminated.

I intend to clarify phonological grammars with a different approach by explaining glottalization of the initial obstruent of endings occurring after the consonants in the ending position of stems with two different rules: the ?-addition rule, and the consonant contraction rule.

I. 서 론

1.1. 방언 연구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정확한 방언구획에 있다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어는 공통방언에서 분화되어 나온 각 방언권에 소속되면서 그 나름의 독자적인 언어체계로 재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계들을 규명하는 작업은 국어학의 폭을 넓히고, 그 이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어 연구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은 1970년대 이후 국어 방언 연구에서 지역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그 결과 상당한 업적들이 나왔으며, 그 업적들은 국어의 방언구획에 귀중한 자료로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한 정도의 연구 업적이 쌓인 것은 아니며, 앞으로는 지역의 단위를 좁히면서 이러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양산 지역어에 대해서는 박지홍(1975)에서 음소체계가 수립되긴 하였으나, 공시 및 통시적인 음운변화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어의 자음 변화와 관련된 제반 음운현상을 고찰하여 그것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그 범위는 곡용과 활용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국한하였는데, 단어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운변화들에 대해서는 이 지역어에 대한 형태론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 1.2. 양산시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은 대략 다음과 같다.

신라 문무왕 5년(655)에 上州(지금의 尚州)와 下州(지금의 昌寧)의 땅을 분할하여 捷良州를 두었는데, 경덕왕 16년(757)에 이를 개칭하여 良州라 하였다. 고려조에 들어와서는 태조 23년(940)에 梁州로 고쳐졌다가 성종 14년(995)에 전국 12牧 가운데 慶州牧 산하의 梁州郡이 되었고 그 屬縣에 東平縣과 機張縣이 있었다. 현종 9년(1018)에 密城에 병합되었다가 충렬왕 32년(1306)에 梁州郡으로 복구되었다.

조선조 태종 5년(1405)에 지금의 이름인 梁山郡으로 바뀌었으며, 선조 25년(1592)년 東萊에 예속되었다가 同王 36년(1603)에 복구되었다. 고종 34년(1897) 13道制 실시에 따라 慶尙南道 梁山郡이 되었는데, 그 산하에 8개 面

(梁山, 東, 勿禁, 院洞, 上北, 下北, 龜浦, 大渚)이 있었다.

1906년 울주군의 외남면과 웅상면을 양산군에 병합하였으나, 1910년 외남면을 울주군에 환부하였으며, 1973년 동래군이 양산군에 병합되었다. 그러나 1986년 양산군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어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등의 5개 읍·면을 관할하게 되었으나 1995년에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이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었다. 1996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산시로 승격되었는데, 현재의 행정구역은 2읍(웅상읍, 물금읍), 4면(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3동(중앙동, 삼성동, 강서동)으로 되어 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 동남부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정족산맥과 대운산맥이 가로놓여 울산시와 인접하고, 서쪽은 낙동강을 끼고 밀양, 김해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남으로는 부산시와 인접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울산, 온산공단을 연결하는 산업도로가 중앙을 질러 있고 경부선(京釜線) 철로가 놓여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양산군지』 47-88쪽 및 『한국지지』 505, 580-581쪽 참조)

1.3. 본 연구에서는 양산시 상북면(법정 마을 9개 리, 행정 마을 26개) 외 석리(일명 석장)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sup>1)</sup> 상북면은 신라시대부터 삽량주의 일부로 양산시의 시대적 변천과 늘 함께 해 온 유서 깊은 지역으로서 양산의 중심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12km의 거리에 있으며, 외석리는 약 350년 전에 생긴 마을이라고 한다. 주민들의 생업은 농업이다. 평상시에는 양산 시내의 시장을 이용하고, 길흉사 등이 있을 때는 부산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면내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주로 양산 시내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며, 대학에 진학할 때는 주로 부산 시내의 대학교로 진학한다고 한다. 특별히 통혼권으로 정해진 곳은 없으며, 주민들

1) 박지홍(1975)에서는 양산 방언을 울산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웅상면 일대의 동부 방언, 동면, 양산면, 상북면, 물금면 일대의 서부방언, 언양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하북면 일대의 북부방언, 밀양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원동면 일대의 서북방언 등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추찰하고, 그 가운데서 서부방언이 양산방언의 줄기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상북면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것은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

의 언어 의식은 울산, 김해, 부산의 말과는 같고, 밀양의 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제보자 및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주제보자: 오근훈(남), 68세, 농업, 7대째 거주, 초등학교 졸업.

부제보자: 강형숙(여), 70세, 농업, 5대째 거주, 초등학교 졸업.

조사 일짜: 1차 조사: 1999. 8. 14.~8. 22.

2차 조사: 2000. 2. 2.~2. 3.

조사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양산시] 지도]



## II. 음운체계

음운체계를 음소체계와 운소체계의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하되, 음소체계는 다시 자음체계와 모음체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음소체계

#### 1) 자음체계

양산 지역어에는 ‘ㅂ, ㅃ, ㅍ, ㅁ, ㄷ, ㄸ, ㅌ, ㅅ, ㄴ, ㄹ, ㅈ, ㅉ, ㅊ, ㅋ, ㄲ, ㅋㅋ, ㅇ, ㅎ’ 등의 18개 자음이 음소로 설정되는데, 이들은 표준어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그리고 표준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ㅎ’도 음소로 설정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짓:-(造) + 는다, 더라, 지, 고, 아도, 으면, 으니까, 았다 → 전년다, 친떠라, 친찌, 칙꼬, 지아도, 지머, 지~꺼내,<sup>2)</sup> 지알따

위의 예는 표준어의 ‘짓+는다, 더라, 고, 아도, 으면, 으니까, 았다’ 등에 대응되는 양산 지역어의 방언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에서는 어간 ‘짓-’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 어간 말음에서 ‘ㅅ’ 혹은 다른 자음의 실현을 볼 수 없으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더라, 지, 고’가 결합될 때는 어미의 두음 ‘ㄷ, ㅈ, ㅋ’가 경음으로 바뀌어 실현된다.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는 아무런 음도 실현되지 않다가 자음 ‘ㄷ, ㅈ, ㅋ’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는 그 ‘ㄷ, ㅈ, ㅋ’를 경음화시킨다는 것은 이 어간의 말음에 ‘ㅎ(?)’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간 ‘지-(負)’에 ‘ㄷ, ㅈ, ㅋ’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는 이들이 경음화되지 않으므로 ‘ㅎ’의 존재 여부는 최소대립어의 형성에 관여하며,<sup>3)</sup> 그것이 하나의 음소로 설정됨을 알 수 있다.

2) 자료 제시에서 사용된 부호 ‘X~, Y~’는 X, Y가 각각 비모음, 고저조(HL)임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3) ‘꺼 ㅎ-(引) : 꺼-(消)’에서도 최소대립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활용형 ‘진년다’는 어간말 자음 ‘ㅎ’가 후행 어미 두음 ‘ㄴ’ 앞에서 평폐쇄음화되어 ‘ㄷ’가 된 다음 다시 조음방법에 동화되어 ‘ㄴ’로 바뀐 것으로, ‘질떠라, 질찌, 직꼬’는 ‘ㅎ+ㄷ, ㅈ, ㅋ’가 경음화되어 ‘ㄸ, ㅉ, ㄲ’가 된 다음 다시 중복자음화된 것으로, 모음 사이에서는 ‘ㅎ’가 탈락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동류의 어사에는 ‘봉-(腫), 푸ㅎ-(喫煙), 꺼ㅎ-(引), 조ㅎ-(拾)’ 등을 들 수 있다.

‘ㅎ’가 음소로 설정되는 것과는 달리, ‘ㅆ’의 경우는 ‘살(肉, 米), 사-(買, 廉)’에서처럼 ‘ㅅ’와 ‘ㅆ’가 변별되지 않아 별개의 음소로 설정되지 않는다.

#### (2) 살(肉) : 살(米), 사다(買) : 사다(廉)

이 지역어의 자음음소를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ㅂ(p)	ㄷ(t)	ㅈ(j)	ㄱ(k)	
ㅃ(p')	ㄸ(t')	ㅉ(j')	ㄲ(k')	ㅎ(?)
ㅍ(pʰ)	ㅌ(tʰ)	ㅊ(jʰ)	ㅋ(kʰ)	ㅎ(h)
	ㅅ(s)			
ㅁ(m)	ㄴ(n)		ㅇ(ŋ)	
	ㄹ(r)			

## 2) 모음체계

### (가) 단모음

양산 지역어에서는 ‘ㅣ, ㅏ, ㅓ, ㅗ’가 음소로 설정되는데, 이것은 표준어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표준어의 e, ε에 해당되는 모음은 E 하나로 합류되었으며<sup>4)</sup>(예, pe(布) : pε(梨), tʰe(輪) : tʰε(胎) → pE(布, 梨), tʰE(輪, 胎)), 표준어의 i, ə에 해당되는 모음도 ㅓ 하나로 합류되었다<sup>5)</sup>(예, kir(文) : kər(을), tʰir(機) : tʰər(毛) → kEr(文, 율), tʰEr(機, 毛)). 그러므로 양산 지역어에서는 6단모음이 음소로 설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체계화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4) ‘ㅔ, ㅐ’의 합류 과정에 대해서는 오종갑(1998)을 참고하기 바람.

5) ‘ㅡ, ㅓ’의 합류 과정에 대해서는 오종갑(1999a)을 참고하기 바람.

6) 표준어의 활용어미 ‘-으니까’에 해당하는 어미가 양산에서는 ‘어~이~꺼내’로 재구조화

(i)	- (E)	↑ (u)
ㅐ (E)	ㅏ (a)	ㅗ (o)

## (나) 이중모음

양산 지역어의 반모음에는 y, w의 둘이 있으나, 이들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이중모음에는, y계의 경우 yE, yE, ya, yu, yo의 다섯이 있고, w계의 경우 wi, wE, wE, wa의 넷이 있다. 그런데 y계나 w계가 다 같이 자음이 선행하지 않을 때는 그 실현에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자음이 선행할 때는 그 실현에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w계의 경우에는 선행 자음이 k, h인 경우에만 실현되는데, 이 경우에도 그 실현 어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ㅐ (yE)	ㅔ (yE)	ㅠ (yu)	ㅟ (wi)	ㅖ (wE)
ㅑ (ya)	ㅕ (yo)		ㅘ (we)	ㅙ (wa)

- (3) ㄱ. 애이(禮儀)[yEi], 열다[yElDa], 양소(羊)[yamso], 유리[yuri], 용(龍)[yoŋ], 겹(重)[kyEŋp], 규칙[kyučik], 처녀[čuŋnyE], 가렵따[karyEpt'a], 괴료(必要)[p<sup>b</sup>iryol], 표범[p<sup>b</sup>yobEbm], 향기[hyangil]  
 ㄴ. 위장[wijag], 왜국(外國)[wEguk], 원수[wEnsu], 왕[waŋ], 해차리(鞭)[hwEč<sup>b</sup>ari], 휴나다(明)[hwEhnada], 꽈매다(固結)[k'wakmEda], 활개[hwalgE]

## 2. 운소체계

양산 지역어에서는 성조와 음장이 운소로 설정되는데, 전자에는 고조(H)와 저조(L)가 있고, 후자에는 장음(:)과 단음이 있다. 이들에 의해 변별되는 최소대립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4) 기(耳)/기 :, 끼 :(蟹), 손(客)/손 :(孫)  
 벌 :(罰), H)/벌 :(蜂)(L), 기(旗), H)/기(耳), L)

## III. 음운과정과 음운규칙

여기서는 양산 지역어의 곡용과 활용에서 발견되는 자음 음운현상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고려하면, 이 지역어의 모음체계에는 비모음 'ㅓ~, ㅣ~'를 음소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펴보기로 하되, 그 음운과정에 관여하는 음운론적 기제에 따라 평폐쇄음화, 동화, 축약, 탈락, 중복자음화, 쌍형 어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 평폐쇄음화

이 지역어에서는 어간 말음 ‘ㅍ’, ‘ㅌ’, ㅅ, ㅆ, ㅈ, ㅊ, ㅎ, ㅋ’, ‘ㄲ’가 어말이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이하에서는 ‘자음 또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줄여서 각각 ‘자음어미’, ‘모음어미’라고 부르기로 함.) 앞에서 각각 ‘ㅂ’, ‘ㄷ’, ‘ㄱ’로 교체되는데, 그것은 7종성(‘ㅂ’, ‘ㄷ’, ‘ㄱ’, ‘ㅁ’, ‘ㄴ’, ‘ㅇ’, ‘ㄹ’)만이 실현 가능한 음절말음제약 때문이다. 교체음 ‘ㅂ’, ‘ㄷ’, ‘ㄱ’는 변이 음규칙인 미파화규칙의 적용에 의해 각각 [p], [t], [k]로 실현된다.<sup>7)</sup> 활용하는 경우의 예를 먼저 보면 (5)와 같다.<sup>8)</sup>

- (5) 집-(縫), 갚-(報), 밀-(信), 불-(附), 벗-(脫), 있-(有), 젖-(漬), 쫓-(追), 놓-(產), 징-(造), 익-(熟), 섞-(混) + (년)다, 더라, 고 → 집년다, 집떠라, 직꼬 ||  
감년다, 감떠라, 각꼬 || 민년다, 밑떠라, 먹꼬 || 분년다, 불떠라, 복꼬 || 번년  
다, 별떠라, 벅꼬 || 일따, 일떠라, 익꼬 || 전년다, 절떠라, 적꼬 || 쫀년다, 쫀떠  
라, 쪽꼬 || 논년다, 놀터라, 녹코 || 진년다, 질떠라, 직꼬 || 잉년다, 익떠라, 익  
꼬 || 성년다, 석떠라, 석꼬

곡용의 경우에도, (6)에서 보는 것처럼, 어간말 자음 ‘ㅍ’, ‘ㅅ’, ‘ㅌ’가 각각 ‘ㅂ’, ‘ㄷ’로 교체되어 활용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지역어에서 특이한 것은 표준어에서 ‘ㅊ’ 말음을 지닌 명사들이 모두 ‘ㅌ’ 말음을 지닌 것으로 재구조화되어 ‘ㅊ’ 말음을 지닌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6) ㄱ. 앞(前), 맛(味), 낯(晝) + #, 도, 이, 애, 열 → 암, 암또, 아페, 아페, 아펄 ||

7) 여기서는 미파화를 폐쇄→지속→개방의 세 단계 조음 과정에서 개방의 단계가 생략된 것이며, 현대국어의 7종성은 모두 미파음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본다(오종갑 1991:499-500, 이호영 1996:141 참조).

8) 평폐쇄음화된 다음 다시 다른 규칙이 적용된 예들에 대한 설명은 해당 항목을 참고하기 바람.

- 맏, 맏또, 마시, 마새, 마설 || 날, 날또, 나지, 나새, 나절<sup>9)</sup>
- ㄴ. 꿀(花) + #, 도, 이, 애, 얼 → 꿀, 꿀또, 꼬치, 꼬태, 꼬털  
(\*동일 유형: 술(炭), 은(漆), 은(櫛腮), 날(面), 빛(光))
  - ㄴ'. 밭(田) + #, 도, 이, 애, 얼 → 밭, 밭또, 바치, 바태, 바털  
(동일 유형: 껌(表, 末), 밑(底), 뱉(陽), 술(鼎), (머리)술, 팥/풀(豆))
  - ㄷ. 절(乳), 목절(懸壅垂) + #, 도, 이, 애, 얼 → 절, 절또, 저지, 저대, 저덜 || 목  
절, 목절또, 목저지, 목저대, 목저덜

표준어의 ‘꽃, 속, 웃, 웃, 낫, 빛’ 등에 해당하는 어사는 (6ㄴ)에서처럼 그 말음이 ‘ㅌ’로 재구조화된 형태로 평폐쇄음화에 참여하는데, 이들은 (6ㄴ')의 ‘밭, 껌, 밑, 뱉, 술, (머리)술, 팥’ 등과 동일한 유형의 곡용을 한다. 그리고 표준어의 ‘젖(乳), 목젖(懸壅垂)’에 해당하는 어사도 (6ㄷ)의 곡용형으로 볼 때 그 기저형이 ‘절, 목절’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에는 평폐쇄음화와는 무관하게 된다.

그런데 (6ㄴ, ㄷ)의 기저형을 ‘꽃, 젖’처럼 설정하지 않고, 표준어와 동일한 ‘꽃, 젖’처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젖’의 경우는 어미 ‘이’ 앞에서는 그대로 실현되고, 어말이나 자음어미 앞에서는 어말 자음이 교체되어 ‘ㄷ’로 실현되며, ‘애, 을’ 앞에서는 교체된 ‘ㄷ’가 화산되어, 즉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ㄷ’로 실현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꽃’의 경우는 이러한 설명 방법이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말음 ‘ㅊ’가 어말이나 자음어미 앞에서는 ‘ㄷ’로 교체되고, 어미 ‘이’ 앞에서는 그대로 실현되며, 어미 ‘애, 을’ 앞에서는 ‘ㅌ’로 바뀌어 실현된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 ‘ㅌ’은 ‘젖’의 설명에서처럼 교체된 음의 실현으로도 볼 수 없고, (6ㄴ')에서 보는 것처럼 기저형이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굳이 이러한 설명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애, 을’ 앞에서 ‘ㅊ’가 ‘ㅌ’로 바뀌는 규칙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 방언에서 이러한 규

9) 표준어 ‘그릇(器), 이웃(隣), 빚(債), 부엌(廚), 웃년(上便), 형겁(布)’ 등에 해당하는 어사들은 이 지역어에서는 각각 ‘거럭, 이붓, 벗, 부억/부썩, 웃녀, 형겁’ 등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짚(藁)’의 경우는 그 곡용형이 ‘집, 집또, 지비, 지폐, 지펠’처럼 실현된다. 그런데 이들 활용형은 규칙(1)의 적용 결과로 나타난 형태 ‘집’으로의 어간 평준화가 어미 ‘이’ 앞에서는 이루어졌으나, ‘애, 얼’ 앞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칙은 존재하지 않는다.<sup>10)</sup>

음운론적으로 보아 (6ㄴ)과 (6ㄷ)의 어간들은 동일한 유형의 곡용을 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데도, 이렇게 어사에 따라 달리 설명하는 것은 문법을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들의 기저형을 각각 ‘빈, 끝’으로 보고, 이것이 어말과 자음어미 앞에서는 이 방언의 일반적인 음운과정에 따라 ‘ㄴ’로 교체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그대로 실현되되, ‘이’일 때는 구개음화되어 ‘ㅈ, ㅊ’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6ㄴ)과 (6ㄷ)을 동일한 음운론적 기제로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어간말 자음의 평폐쇄음화를 규칙화하면 규칙(1)과 같다.<sup>11)</sup> 그런데 이 규칙은 연음규칙이<sup>12)</sup> 적용된 다음에 적용되고, 활용어간 말음이 ‘ㅎ, ㅌ’인 경우에는 자음축약(유기음화, 경음화)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적용된다.

$$\text{규칙(1): } \left[ \begin{smallmatrix} \text{ㅍ} \\ \text{ㅌ}, \text{ㅅ}, \text{ㅆ}, \text{ㅈ}, \text{ㅊ}, \text{ㅎ}, \text{ㅋ} \\ \text{ㄲ}, \text{ㅋ} \end{smallmatrix} \right] \rightarrow \left[ \begin{smallmatrix} \text{ㅂ} \\ \text{ㄷ} \\ \text{-} \end{smallmatrix} \right] / \quad \text{--- } ] \sigma$$

## 2. 동화

전후 음의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또는 두 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 성질을 닦는 음운과정을 동화라고 한다. 이에는 비음화, 유음화, 지속음화, 순음화, 연구개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는데, 앞의 셋은 조음방법동화에 해당되고, 뒤의 셋은 조음위치동화에 해당된다.

### 1) 비음화

10) 최명옥(1998a:242-244)에서는 ‘ㄷ’ 구개음화규칙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치, 바틀, 바테’와 같은 교체형을 보이는 어사의 경우에는 쌍형어간 ‘밧, 밟’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11) 규칙(1)과 규칙(10)의 경우에는 규칙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규칙의 표기에 변별자질을 사용하지 않았다.

12) 자음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되면, 이 자음이 어미의 두음으로 실현되는 규칙을 연음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별도로 논의하지 않았다.

어간 말음이 ‘ㅂ, ㄷ, ㄱ’이고, 여기에 ‘ㅁ, ㄴ’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전자는 후자의 조음방법에 동화되어 각각 ‘ㅁ, ㄴ, ㅇ’으로 바뀐다(7-1). 그리고 (7-2)의 경우는 평폐쇄음화규칙(1)의 적용에 의해 어간 말음 ‘ㅍ’, ‘ㅌ’, ‘ㅅ’, ‘ㅊ’, ‘ㅎ’, ‘ㅋ’, ‘ㄲ’가 각각 ‘ㅂ, ㄷ, ㄱ’로 바뀐 다음 다시 ‘ㅁ, ㄴ, ㅇ’으로 바뀐다. 그런데 곡용어간 ‘밭(田), 옷(衣), 낯(面)’ 등의 경우에는 비음화된 다음 다시 ‘ㅁ’의 조음위치에 동화된다. (7-3)의 경우는 자음군단순화규칙이 적용되어 어간 말음이 ‘ㅂ, ㄱ’가 된 다음 비음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비음화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2)와 같다.

규칙(2):  $\begin{bmatrix} +\text{자음성} \\ -\text{공명성}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비음성} \end{bmatrix} / \text{——} + \begin{bmatrix} +\text{비음성} \end{bmatrix}$

- (7) ㄱ. 잡-(捕), 믿-(信), 익-(熟) + 낸다 → 잡낸다, 믿낸다, 익낸다  
 밥(飯), 절(乳), 바둑(棋) + 만 → 밤만, 전만(→점만), 바동만  
 ㄴ. 덮-(覆), 붙-(附), 벗-(脫), 쟁-(追), 놓-(產), 징-(造), 섞-(混) + 낸다 → 덤  
 낸다, 분낸다, 뻔낸다, 쫀낸다, 논낸다, 진낸다, 성낸다  
 앞(前), 밭(田), 옷(衣), 낯(畫) + 만 → 암만, 반만(→밤만), 온만(→온만), 난  
 만(→남만)  
 ㄷ. 값(價), 넋(魂) + 만 → 감만, 넝만

## 2) 유음화

이 지역어에서는 ‘ㄹ’계 자음군 ‘탸, 탸, 탸, 탸’가 단순화되면 ‘ㄹ’가 남고, 이 남은 ‘ㄹ’의 조음방법이 어미의 두음 ‘ㄴ’에 영향을 미쳐 ‘ㄴ’가 ‘ㄹ’로 바뀌는데, 이 음운과정을 유음화라고 한다. 유음화되는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3)과 같고, 그 예는 (8)과 같다. 이 규칙은 자음군단순화규칙이 적용된 뒤에 적용된다.

규칙(3):  $\begin{bmatrix} +\text{비음성} \\ +\text{전방성} \\ +\text{설정성}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유음성}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유음성} \end{bmatrix} + \text{——}$

- (8) 낡-(老), 밟-(踏), 훑-(舐), 앓-(痛) + 낸다 → 널런다, 밟런다, 훑런다, 알런다

## 3) 지속음화

말자음이 ‘ㄷ’인 활용 어간에 ‘ㅅ’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어간의 ‘ㄷ’

는 ‘ㅅ’의 지속성에 동화되어 ‘ㅅ’로 바뀐다. 그런데 말음이 ‘ㅌ, ㅈ, ㅊ, ㅎ, ㅋ’인 경우에는 평폐쇄음화에 의해 ‘ㄷ’로 바뀐 다음 다시 ‘ㅅ’로 바뀐다(9). 이 음운과정을 지속음화라고 하고, 그것을 규칙화하면 규칙(4)와 같다.<sup>13)</sup>

(9) 물-(埋), 맡-(臭), 젓-(漚), 쫌-(逐), 놓-(放), 징-(作) + 소 → 뜻소, 맛소, 짓소, 쫓소, 놓소, 짓소

규칙(4):  $\begin{bmatrix} +전방성 \\ +설정성 \\ -향음성 \end{bmatrix} \rightarrow [+지속성] / — + [+지속성]$

#### 4) 순음화

치경음(‘ㄴ, ㄷ, ㅅ, ㅌ’)이나 경구개음(‘ㅈ’)으로 끝난 곡용어간에 순음으로 시작되는 곡용어미가 결합되면, 이를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은 규칙(1)이 먼저 적용되어 ‘ㄴ, ㄷ’로 교체된 다음 뒤의 순음의 조음위치에 동화되어 순음으로 바뀐다. 이 과정을 순음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규칙화하면 규칙(5)과 같고, 그 예는 (10)과 같다.

규칙(5):  $\begin{bmatrix} +전방성 \\ -유음성 \end{bmatrix} \rightarrow [-설정성] / — + \begin{bmatrix} +전방성 \\ -설정성 \end{bmatrix}$

(10) 산, 절(乳), 옷, 밤, 낮(晝) + 만, 보다 → 삼만, 삼보다 || 점만, 점쁘다 || 음만, 음쁘다 || 밤만, 밤쁘다 || 남만, 남쁘다

#### 5) 연구개음화

어간말 자음 ‘ㅂ, ㄷ, ㅁ, ㄴ’ 등이 어미의 두음 ‘ㄱ, ㅋ’의 조음위치에 동화되어 각각 ‘ㄱ, ㄱ, ㅇ, ㅇ’ 등으로 바뀌는 음운과정을 연구개음화라고 한다. 이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6)과 같고, 그 예는 (11ㄱ)과 같다. 어간말 자음이 ‘ㅍ, ㅌ, ㅅ, ㅈ, ㅊ’인 (11ㄴ)의 경우에는 규칙(1)이, 어간말 자음이 ‘ㄴ, ㄹ, ㅋ’인 (11ㄷ)의 경우에는 자음군단순화규칙이, 어간말 자음이 ‘ㅎ’인 (11ㅂ)의 경우에는 유기음화규칙이 각각 적용된 다음 규칙(6)이 적용된다.

13) 곡용에서는 이 구조기술을 충족시키는 어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어간이라 는 범주화는 불필요하다.

규칙(6):  $\left[ \begin{array}{l} +\text{자음성} \\ -\text{설정성} \\ -\text{유음성}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text{후설성} \right] / \text{---} + \left[ \begin{array}{l} +\text{자음성} \\ -\text{설정성} \\ +\text{후설성} \end{array} \right]$

- (11) ㄱ. 입-(衣), 넘-(越), 닦-(閉), 신-(履) + 고 → 익꼬, 넝꼬, 닥꼬, 싱고  
 밥(飯), 몸(身), 절(乳), 눈(眼) + 껴징 → 박꺼징, 몽꺼징, 적꺼징, 능꺼징  
 ㄴ. 덮-(覆), 같-(如), 젓-(漕), 젖-(潤), 품-(追) + 고 → 덕꼬, 각꼬, 적꼬, 쪽꼬  
 앞(前), 꽃(花), 빗(梳), 낯(畫) + 껴징 → 악꺼징, 꼭꺼징, 빅꺼징, 낙꺼징  
 ㄷ. 앉-(坐), 굶-(飢) + 고 → 양꼬, 궁꼬  
 굶 + 껴징 → 각꺼징  
 ㄹ. 많-(多) + 고 → 망꼬

## 6) 구개음화

치경음 ‘ㄷ, ㅌ’를 말음으로 가진 곡용어간에 어미 ‘이, 이다’가 결합되면, 어간 말음 ‘ㄷ, ㅌ’는 각각 ‘ㅈ, ㅊ’로 바뀐다. 이것은 ‘ㄷ, ㅌ’가 후행 ‘ㅣ’의 전·고설성에 동화된 것인데, 이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7)과 같고, 그 예는 (12)와 같다.

규칙(7):  $\left[ \begin{array}{l} +\text{설정성} \\ -\text{지속성} \\ -\text{비음성}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전방성} \\ +\text{소음성} \\ +\text{고설성} \end{array} \right] / \text{---} + \left[ \begin{array}{l} -\text{자음성} \\ +\text{고설성} \\ -\text{후설성} \\ -\text{원순성} \end{array} \right]$

- (12) 절(乳), 목절(懸壅垂), 꽃(花), 밭(田) + 이, 이다 → 저지, 저지다 || 목저지,  
 목저지다 || 꼬치, 꼬치다 || 바치, 바치다

## 3. 축약

두 음의 연결에서 한 음이 그 자질의 일부를 다른 음에 넘겨주고 자신은 탈락하는 음운과정을 축약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유기음화, 경음화 등이 있다.

### 1) 유기음화

이 지역어에서는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ㅎ’로 끝난 활용어간에 ‘ㄷ, ㅈ,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선행 ‘ㅎ’는 자신이 지닌 유기성을 후행의

‘ㄷ, ㅈ, ㄱ’에 넘겨주고 탈락하는데, 이 음운과정을 유기음화라고 한다. 그러나 어미 두음이 ‘ㅅ’인 경우에는 유기음으로 바뀌지 않는데, 그것은 이 지역어에 ‘sh’와 같은 음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꼭용에서는 표준어의 경우와는 달리 꼭용어미 ‘하고’의 ‘ㅎ’가 먼저 탈락되기 때문에 유기음화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음탈락에서 다루어진다. 이 지역어의 유기음화를 규칙화하면 규칙(8)과 같다.<sup>14)</sup>

$$\text{규칙(8): } \begin{bmatrix} -\text{자음성} \\ -\text{향음성} \\ +\text{유기성} \end{bmatrix}_1 + \begin{bmatrix} +\text{자음성} \\ -\text{향음성} \\ -\text{지속성} \\ -\text{긴장성} \end{bmatrix}_2 \Rightarrow \begin{bmatrix} 1 \\ \emptyset \\ 2 \end{bmatrix}_{+}\text{유기성}$$

- (13) 많-(多), 옮-(妥當), 놓-(產) + 다, 지, 고 → 만다, 만치, 망코 || 올타, 올치, 올코 || 놀타, 놀치, 녹코

## 2) 경음화

‘ㅎ’로 끝난 활용어간에 ‘ㄷ, ㅈ,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선행 ‘ㅎ’가 지닌 [성문성]을 후행의 ‘ㄷ, ㅈ, ㄱ’에 넘겨주고 자신은 탈락하는데(14), 이 음운과정을 경음화라고 한다. 그러나 어미 두음이 ‘ㅅ’인 경우에는 경음으로 바뀌지 않는데, 그것은 이 지역어에 음소 ‘ㅆ’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9)과 같다.

$$\text{규칙(9): } \begin{bmatrix} -\text{자음성} \\ -\text{향음성} \\ +\text{성문성} \end{bmatrix}_1 + \begin{bmatrix} +\text{자음성} \\ -\text{향음성} \\ -\text{지속성} \\ -\text{긴장성} \end{bmatrix}_2 \Rightarrow \begin{bmatrix} 1 \\ \emptyset \\ 2 \end{bmatrix}_{+}\text{성문성}$$

- (14) 짱-(造), 봉-(注), 조조-(拾) + 더라, 지, 고 → 짐떠라, 짐찌, 직꼬 || 봉떠라, 봉찌, 복꼬 || 줄떠라, 줄찌, 족꼬

14) ‘급행(急行), 국개(國會), 낙카산, 축카, 넝너카다, 똑또카다, 꼬판다, 거파다, 차카다, 밸키다, 널피다, 더피다, 마키다, 급피, 속키’ 등과 같은 단어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기음화는 본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 고려하지 않았다.

어간 말음에 ‘ㅎ’를 가진 (14)와는 달리 어간 말음에 ‘ㅎ’를 가지지 않은 (15)에서도 경음화되는 예를 볼 수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 경우 경음화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말음이 무성자음인 어간에 ‘ㄷ, ㅈ,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 그 어미의 두음은 모두 경음화됨을 볼 수 있다(15ㄱ). 그러나 어간 말음이 유성자음인 경우에는 경음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활용이냐 곡용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활용의 경우에는 어간 말음이 ‘ㅁ’인 경우에는 어미의 두음이 경음화되고, 동일한 유성자음이라도 ‘ㄴ, ㄹ’인 경우에는 경음화되지 않는다(15ㄴ). 그리고 곡용의 경우에는 말음이 ‘ㄹ’이고 어미가 ‘도’일 때만 경음화된다(15ㄷ).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문제는 이 과정을 규칙으로 설정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평음이 바로 경음으로 바뀌는 것(‘ㄱ→ㄲ/C—’형)으로 규칙을 설정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 첨가되는 규칙과, 첨가된 ?와 뒤의 평음이 축약되어 경음으로 바뀌는 축약(경음화)규칙의 둘로 나누어 규칙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설정되는 규칙의 수에서만 보면, 전자의 방법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문법 전반을 두고 볼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후자의 방법에서 설정되는 축약규칙은 이미 존재하는 규칙(9)로 대치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첨가규칙만 추가하면 된다. 따라서 전후자의 어느 방법을 취하든지 규칙 수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전자의 방법을 취할 때는 동일한 경음을 도출하기 위해 한편에서는 축약(경음화)규칙(9)가 적용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별도의 경음화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후자의 방법을 취할 때는 동일한 경음을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후자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문법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후자의 방법을 취해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과정을 ‘ㅎ’첨가와 축약의 두 과정으로 분리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ㅎ’가 첨가되는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10)과 같고, 이 ‘ㅎ’가 후행 자음

과 축약되어 경음화되는 과정을 규칙화하면 앞의 규칙(9)와 같다.

규칙(10):  $\emptyset \rightarrow \text{ㄱ} / \begin{cases} \{\text{무성자음, } \text{ㅁ}\}_{\text{Vst.}} + \text{--- } \{\text{ㄷ, } \text{ㅈ, } \text{ㄱ}\} \\ \{\text{무성자음, } \text{ㄹ}\}_{\text{N.}} + \text{--- } \{\text{ㄷ, } \text{ㅂ}\} \end{cases}$   
 (ㄹ) N.일 때는 'ㄷ'만 선택됨.)

/징+고/	/놓+고/	/익+고/	/살+고/	/쫓+고/	
—	—	익 고	—	쫓 고	규칙(10)
—	노코	—	—	—	규칙(8)
지꼬	—	익꼬	—	쫓꼬	규칙(9)
쥐꼬	눌코	—	—	—	규칙(16)
작꼬	녹코	—	—	쫓꼬	규칙(1)
—	—	—	—	쪽꼬	규칙(6)
직'꼬	녹'코	익'꼬	살'고	쫓'꼬	미파화
[직'꼬]	[녹'코]	[익'꼬]	[살'고]	[쫓'꼬]	

- (15) ㄱ. 익-(熟), 깎-(削), 닫-(閉), 입-(衣), 벗-(脫), 젖-(潤), 쟁-(追), 불-(附), 덮-(覆), 앉-(坐), 밝-(明), 밟-(踏), 풀-(舐), 없-(無) + 더라, 지, 고 → 익여라, 익찌, 익꼬 || 각여라, 각찌, 각꼬 || 닫여라, 닫찌, 닫꼬 || 입여라, 입찌, 익꼬 || 벌여라, 벌찌, 벌꼬 || 걸여라, 걸찌, 걸꼬 || 쫓여라, 쫓찌, 쫓꼬 || 불여라, 불찌, 불꼬 || 덤여라, 덤찌, 덤꼬 || 안여라, 안찌, 양꼬 || 발여라, 발찌, 발꼬 || 발여라, 발찌, 발꼬 || 활여라, 활찌, 활꼬 || 엄여라, 엄찌, 엄꼬  
 국, 밥, 옷, 끓, 앉 + 도, 보다 → 국또, 국뽀다 || 밥또, 밥뽀다 || 온또, 온뽀다 || 끈또, 풀뽀다 || 암또, 암뽀다  
 ㄴ. 남(餘), 삶(烹) + 더라, 지, 고 → 남여라, 남찌, 남꼬 || 삶여라, 삶찌, 상꼬 || cf. 신(履), 불(吹) + 더라, 지, 고 → 신더라, 신지, 싱고 || 불더라, 불지, 불고  
 ㄷ. 말(語), 말 + 도, 보다 → 말또, 말보다 || 말또, 말보다 || cf. 산, 몸, 강 + 도, 보다 → 산도, 삼보다 || 몸도, 몸보다 || 강도, 강보다

#### 4. 탈락

여러 가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해 분절음이 떨어지는 음운과정을 탈락이라고 한다. 이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음탈락, 유음탈락 등이 있다.

##### 1) 자음군 단순화

이 지역어에서는 자음군( $C_1C_2$ )으로 끝난 어간이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음절말에 두 자음이 올 수 없는 음절말음제약 때문에 두 자음 가운데 하나가 탈락되는데, 이 음운과정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그러나 자음군  $C_1C_2$ 에서 어느 자음이 탈락되는지에

대해서는 방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이 지역어의 음절말 자음군을 보면, ‘ㄱ, ㄴ, ㅋ, ㅌ, ㄷ, ㄹ, ㅁ, ㅂ, ㅍ, ㅎ’가 있으며,<sup>15)</sup> 이들 가운데 ‘ㄹ’을 제외한 자음군에서는 후행 자음이 탈락됨을 알 수 있는데<sup>(16-1)</sup>, 이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11)과 같다. 다만, ‘ㅎ’가 후행되는 자음군 ‘ㅌ, ㅋ, ㅍ, ㅎ’에 ‘ㄷ, ㅈ,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는 이 규칙이 적용되기에 앞서 규칙(8)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규칙은 공전된다.

$$\text{규칙(11)}: C_2 \rightarrow \emptyset / C_1 \longrightarrow ]o$$

(16-1)의 경우에는 두 자음 가운데 한 자음이 탈락된 점에서는 (16-1)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나, 후행 자음이 아닌 선행 자음이 탈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16-1)의 ‘ㅌ, ㅋ’와 이 경우의 ‘ㄹ’를 비교하면, 다 같이 ‘ㄹ’을 선행시키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탈락의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음절말음제약 이외의 다른 요인도 여기에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6)의 예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16-1)의 경우에는 그 음의 연결이 ‘공명자음+비공명자음’, 혹은 ‘비공명자음+비공명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16-2)의 경우에는 ‘공명자음+공명자음’이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음운론적 강도가 약한 ‘ㄹ’가 삭제됨도 알게 된다.<sup>16)</sup> 이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12)와 같은데, 이것은 규칙(11)에 앞서서 적용되어야 한다.

$$\text{규칙(12)}: [ \begin{matrix} C_1 \\ +\text{공명성} \end{matrix} ] \rightarrow \emptyset / \longrightarrow [ \begin{matrix} C_2 \\ +\text{공명성} \end{matrix} ] ]_o$$

- (16) ㄱ. 앉-(坐), 밝-(明), 밟-(踏), 헹-(舐), 없-(無)/없-(無) + 나, 더라, 소, 지, 고  
 → 안나, 안떠라, 안소, 앉지, 양꼬 || 발라, 발떠라, 발소, 발찌, 발꼬 || 발  
 라, 발떠라, 발소, 발찌, 발꼬 || 홀라, 홀떠라, 홀소, 홀찌, 홀꼬 || 엄나, 엄/  
 엄떠라, 엄/엄소, 엄/엄찌, 엄/엄꼬 ||  
 痛-(痛), 땅 허-(辯), 경 허-(折), 많:-多), 웃-(妥當) + 나, 소 → 알라, 알

15) 어간말 자음군에는 ‘여’가 추가되나 이것은 모음어미 앞에서만 실현된다.(III.6. 참조)

16) 김차균(1983:29)에서는 치경음보다 순음과 연구개음이 음운론적 강도가 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배주채(1998:100)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소 || 땅나, 땅소 || 경나, 경소 || 만나, 만소 || 올라, 올소  
 넉(魂), 닭(鷄), 여덟(八), 값(價) + #, 도 → 넉, 넉또 || 달, 달또 || 여덟, 여  
 딸또 || 갑, 갑또  
 ㄴ. 삶-(烹) + 나, 더라, 소, 지, 고 → 삶나, 삶떠라, 삶소, 삶찌, 삶꼬

## 2) 후음 탈락

이 지역어에서는 후음 ‘ㅎ, ㅇ’가 말음인 활용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되면 이 후음은 모두 탈락되는데, 이러한 음운과정을 후음 탈락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13)과 같고, 그 예는 (17)과 같다.

규칙(13): [-자음성] → ø / [+유성성] — + V  
 [-향음성]

(17) 好-(好), 爭-(妥當), 多-(多), 造-(造) + 아도, 어머, 어~이~꺼내 → 조아도, 조  
 : 머, 조~: 이~꺼내 || 오래:도, 오려머, 오려~이~꺼내 || 마내도, 마너머, 마너~  
 이~꺼내 || 지아도, 지머, 지~꺼내

그리고 곡용어간에 곡용어미 ‘하고’가 결합될 때도 어미의 두음 ‘ㅎ’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어간 말음이 ‘ㅂ, ㄷ, ㄱ, ㄴ, ㄹ’이면 ‘하고’의 두음 ‘ㅎ’가 필수적으로 탈락되고,<sup>17)</sup> 어간 말음이 ‘ㅁ’이면 ‘ㅎ’가 수의적으로 탈락되며, ‘ㅇ’이나 모음이면 ‘ㅎ’는 탈락되지 않는다. 이 과정을 규칙화 하면 규칙(14)와 같고, 그 예는 (18)과 같다. 이 규칙은 규칙(1)이 적용된 다음에 적용된다.

규칙(14): ㅎ → ø / [+자음성]]<sub>n</sub> + — + V  
 ([+자음성]=ŋ이고, [+자음성]=m일 때는 수의적임.)

(18) 羹(羹), 손(手), 발(足), 밥(飯), 옷(衣), 젖(乳), 슬(鼎), 앞(前) + 하고 → 구가고,  
 소나고, 바라고, 바바고, 오다고, 저다고, 소다고, 아바고  
 김(柿), 밤(夜) + 하고 → 가마고 ~ 감하고[kamhago], 바마고 ~ 밤하고[pamhago]  
 cf. 강(江), 콩(豆), 대추, 채소, 내, 니, 김치 → 강하고[kaghago], 콩하고[k'onghago],  
 대추하고[t'Ech'uhago], 채소하고[č'Esohago], 내하고[nEhago], 니하고[nifi  
 ago], 김치하고[kimč'ihago]

## 3) 유음 탈락

17) 통시적으로 볼 때, 무성자음 ‘ㅂ, ㄷ, ㄱ’ 뒤에서 ‘ㅎ’가 탈락된 과정은 V{p, t, k}hV  
 → V{b, d, g}hV > (V{bʱ, dʱ, gʱ}V) > V{b, d, g}V로 설명된다(오종갑 1999b 참조).

‘ㄹ’계 자음군에서 유음 ‘ㄹ’가 탈락되는 경우는 앞의 자음군단순화에서 이미 보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이외의 경우에서 ‘ㄹ’가 탈락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지역어에서는 ‘ㄹ’를 말음으로 가진 활용어간에 ‘ㄴ, ㅅ’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말음 ‘ㄹ’가 탈락된다(19ㄱ). 그 이유는 동기관적 음의 연속을 꺼리기 때문인데, ‘ㄴ, ㅅ’가 탈락되지 않고 ‘ㄹ’가 탈락되는 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기관적 음이라도 어미의 두음이 ‘ㄷ’인 경우에는 ‘ㄹ’가 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ㄹ’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에 결합되면, 어간 말음 ‘ㄹ’가 탈락된다(19ㄴ). 그 이유는 ‘ㄹ’ 아래서 어미 두음 ‘어’가 탈락되어<sup>18)</sup> ‘팔ㄴ다, 팔ㅁ니더, 팔ㄴ, 팔ㄹ, 팔신다’와 같은 형태가 된 다음, ‘팔ㄴ다, 팔ㅁ니더’에서는 모음간에 세 자음이 올 수 없는 표면음성제약과 음운론적 강도의 차이에 의해, ‘팔ㄴ, 팔신다’은 음운론적 강도의 차이에 의해, ‘팔ㄹ’은 동음충돌에 의해 각각 ‘ㄹ’가 탈락되기 때문이다.

(19ㄷ)의 경우는 어미 ‘어~이~꺼내’에서 ‘어~’가 탈락되어 ‘팔이~꺼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이 형태는 다시 비모음 ‘이~’ 앞에서 ‘ㄹ’가 탈락되어 ‘파이~꺼내’가 된 다음, 또 다시 ‘이~’의 비음성에 역행동화되어 ‘파~이~꺼내’로 실현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ㄹ’ 탈락과정을 종합하여 규칙화하면 규칙(15)와 같고, 이 규칙은 자음군단순화규칙이 적용된 다음에 적용된다.

$$\text{규칙(15)}: [+유음성] \rightarrow \emptyset / \left\{ \begin{array}{l} \text{——} ]_{\text{vst.}} \\ \text{——} + \text{CC} \\ (+\text{전방성}, +\text{설정성}) \end{array} \right\} \quad \left\{ \begin{array}{l} [+전방성, +설정성] \\ V^~ \end{array} \right\}$$

(+전방성, +설정성) ≠ ㄷ임.)

- (19) ㄱ. 팔-(賣), 살-(住) + 나, 소 → 파나, 파소 || 사나, 사소 cf. 팔-(賣), 살-(住) + 더라, 지, 고 → 팔더라, 팔지, 팔고 || 살더라, 살지, 살고  
 ㄴ. 팔-(賣), 살-(住) + 안다, 엄니더, 언, 열, 어신다 → 판다, 팜니더, 판, 팔, 팔신다 || 산다, 삼니더, 산, 살, 사신다.

18) 어미 두음 ‘어’의 탈락과 관련된 음운론적제약에 대해서는 오종갑(1994)를 참고하기 바람.

ㄷ. 팔-(賣), 살-(住) + 어~이~꺼내 → 파~이~꺼내 ㅂ 사~이~꺼내. cf. 술, 물  
+ 언, 어로 → 수련, 술로 ॥ 무련, 물로

이상에서 살펴본 Ⅲ.4.1)~Ⅲ.4.3)의 자음탈락 이외에도 ‘ㄱ, ㄴ, ㅇ’ 등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곡용어간 ‘이쪽’에 어미 ‘애’가 결합되면 ‘ㄱ’가 탈락된다. 다음 어미 ‘애’가 어간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되고, ‘손, 산, 콩’에 어미 ‘이’가 결합되면 ‘ㄴ, ㅇ’이 전후 모음을 비음화시킨 다음 자신은 탈락한다. 그러나 이러한 탈락은 이 지역어에서 보편화되지 못하고 몇몇 어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규칙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 (20) ㄱ. 이쪽(此便) + 애 → 이쪽^\*. cf. 죽(粥), 막(幕), 속, 달락, 오르막 + 애 → 주개, 마개, 소개, 달라개, 오르마개  
ㄴ. 손(手), 산, 콩 + 이 → 소~이~, 사~이~, 코~이~. cf. 눈(眼), 강, 장(場), 등(背) + 이 → 누니, 강이, 장이,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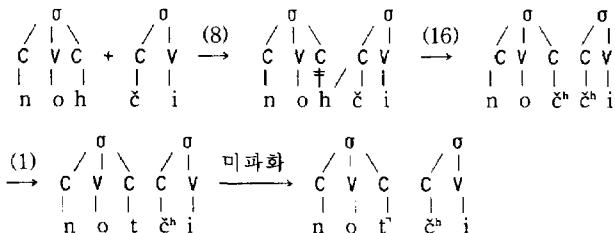
## 5. 중복자음화

말음이 후음 ‘ㅎ, ㅋ’인 활용어간에 ‘ㄷ, ㅈ,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이들이 축약되어 유기음이나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은 앞에서 본 바 있다. 그런데 이 유기음이나 경음은 이 지역어에서 중복자음으로 실현된다 (22). 그 이유는 유기음이나 경음이 장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들의 조음과정인 폐쇄, 지속, 개방의 3단계에서 지속의 단계를 경계로 인식하고, 그 앞 단계인 폐쇄의 단계를 선행 음절의 말음으로, 뒤 단계인 개방의 단계를 후행 음절의 두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잎+이’가 \*입피’가 아닌 ‘이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조음과정이 전적인 이유는 아닌 듯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ㅎ, ㅋ’ 등이 탈락되고 남은 C-자리를 메우기 위해 중복자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규칙화하면 규칙(16)과 같고, ‘놓+지→놀치’를 예로 들어 그 도출과정을 보이면 (21)과 같다.

$$\text{규칙(16)}: \emptyset \rightarrow [ \begin{smallmatrix} \text{C}_1 \\ +\text{긴장성} \end{smallmatrix} ] / V \longrightarrow [ \begin{smallmatrix} \text{C}_1 \\ +\text{긴장성} \end{smallmatrix} ] V$$

(자음축약으로 생성된  $[C_i]$ 에만 적용됨.)  
+ 긴장성

(21)



(22) 놓-(產), 영-(入), 징-(造), 불-(腫, 注) + 더라, 지, 고 → 놓더라, 놓치, 놓코 ||  
연터라, 연치, 역코 || 징떠라, 징찌, 징꼬 || 불떠라, 불찌, 북꼬

## 6. 쌍형 어간

여기서는 표준어에서 말하는 동사의 불규칙활용이 이 지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되, 표준어의 ‘ㅂ, ㅅ’ 불규칙활용에 해당되는 어간들은 이 지역어에서 모두 규칙활용을 하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ㄷ’ 불규칙활용에 해당되는 어간들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그 말음이 ‘ㄷ’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ㄹ’로 실현되어 표준어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먼저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3) 던/덜-(聽), 물/물-(問), 걸/걸-(步), 신/실-(載) + 낸다, 더라, 지, 고, 어도, 어며 → 던낸다, 던떠라, 던찌, 덕꼬, 더러도, 더러며 || 문낸다, 물떠라, 물찌, 북꼬, 무려도, 무리며 || 견낸다, 견떠라, 견찌, 격꼬, 거려도, 거려며 || 신낸다, 신떠라, 신찌, 식꼬, 시려도, 시려며. cf. 닫-(閉), 물-(理) + 낸다, 더라, 지, 고, 어도, 어며 → 단낸다, 단떠라, 단찌, 닉꼬, 다더도, 다더며 || 문낸다, 물떠라, 물찌, 북꼬, 무더도, 무더며  
살-(住) + 낸다, 더라, 지, 고, 어도, 어며 → 산다, 살더라, 살지, 살고, 사라도, 살며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던-(聽)’류의 어간 말음 ‘ㄷ’는 어미 두음의 종류에 따라 ‘ㄴ, ㄷ, ㄱ, ㄹ’의 네 음으로 교체된다. 그런데 이를 가운데 ‘ㄴ,

ㄱ'는 말음 'ㄷ'가 각각 비음화와 연구개음화를 경험한 것으로 설명되므로 이들을 'ㄷ'에 포함시키면 자음어미 앞에서는 'ㄷ(ㄴ, ㄱ)'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ㄹ'로 교체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을 기저형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여기서의 문제가 된다.

먼저 'ㄷ'을 기저형으로 설정하면, 자음어미 앞에서는 'ㄷ'가 그대로 실현되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ㄹ'로 교체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닫-(閉)'류의 활용형과 비교해 보면, 자음어미가 결합될 때의 활용형은 동일한 유형을 보이지만 모음어미가 결합될 때의 활용형은 전자의 경우에는 'ㄹ'로, 후자의 경우에는 'ㄷ'로 실현되어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ㄹ'을 기저형으로 설정하면, 자음어미 앞에서는 'ㄷ'로 교체되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ㄹ'가 그대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어간 말음이 'ㄹ'인 '살-'류의 활용형과 비교해 보면, 자음어미 앞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동일함을 보인다.

이상의 두 대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의 어간 말음의 기저형을 'ㄷ'나 'ㄹ' 가운데 어느 하나로 설정하여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음어미 앞에서는 'ㄷ'를, 모음어미 앞에서는 'ㄹ'을 가진 것으로 기저형을 설정함으로써, 즉 쌍형 어간으로 기저형을 설정함으로써 문법의 예외를 줄이기로 한다.

이러한 쌍형 어간은 다음의 (24)에서도 인정된다.

- (24) ㄱ. 앓/암-(痛), 삶/쉼-(產卵), 잃/읽-(失), 짙/黠-(搔), 짚/꺾-(沸) + 낸다, 더라, 지, 고, 어도, 어머 → 알란다, 알터라, 알치, 알코, 알가도, 알거머 || 실란다, 실터라, 실치, 실쿄, 실거도, 실거머 || 일란다, 일터라, 일치, 일쿄, 일거도, 일거머 || 깔란다, 깔터라, 깔치, 깔쿄, 깔가도, 깔거머 || 결란다, 결터라, 결치, 결쿄, 결거도, 결거머.  
 ㄴ. 삶-(憎) + 나, 더라, 지, 고, 어도, 어머 → 실라, 실터라, 실치, 실쿄, 시리도, 시러머.  
 널-(老) + 낸다, 더라, 지, 고, 어도, 어머 → 널란다, 널터라, 널찌, 널꼬, 널거도, 널거머.

표준어에서 'ㅎ' 말음을 지닌 어간은 이 지역어에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24ㄴ)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어간 말음이 'ㅎ~ㄹ'로 교체되

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표준어와 동일하며, ‘ㄹ’과 모음 사이에서 ‘ㅎ’가 탈락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 어간 말음이 ‘ㅎ~ㄹ’로 교체하는 (24-1)의 경우로서 이 경우는 표준어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지역어에서 ‘ㄹ’과 모음 사이의 ‘ㅎ’가 ‘ㄱ’로 바뀌거나 반대로 ‘ㄱ’가 ‘ㅎ’로 바뀌는 공시적 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ㅎ~ㄹ’의 교체를 자동적인 교체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경우 역시 자음어미 앞에서는 ‘ㅎ’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ㄹ’로 실현되는 쌍형 어간으로 취급함으로써 문법의 예외를 줄이고자 한다.

표준어의 ‘끊-(斷), 꺾-(折)’에 해당하는 어간은 이 지역어에서는 구별없이 그 활용형이 ‘껑년다, ꑝ터라, ꑝ치, ꑝ코, ꑝ커도, ꑝ커며’처럼 실현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간 말음이 ‘ㅇ~ㅎ~ㅋ’의 셋으로 실현된다. 이 가운데 ‘ㅇ’은 그 어간 기저형의 말음이 ‘ㅋ’이든지 ‘ㅎ’이든지 상관없이 음절말에 두 자음이 실현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탈락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ㅋ’와 ‘ㅎ’의 경우에는 이 지역어에서 공시적으로 ‘ㅋ’가 ‘ㅎ’로 바뀌는 규칙이나 ‘ㅎ’가 ‘ㅋ’로 바뀌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바뀐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경우 역시 자음어미 앞에서는 그 어간 말음이 ‘ㅇㅎ’이고, 모음어미 앞에서는 그 어간 말음이 ‘여’인 쌍형 어간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지 조사한 양산 지역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어의 음운체계와 자음 음운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 1) 양산 지역어의 자음음소에는 ‘ㅂ, ㅃ, ㅍ, ㅁ, ㄴ, ㄸ, ㅌ, ㅅ, ㄴ, ㄹ, ㅈ, ㅉ, ㅊ, ㅋ, ㄲ, ㅋ, ㅇ, ㅎ, ㅎ’ 등의 19개가 있고, 모음음소에는 ‘ㅏ, ㅐ, ㅓ, ㅓ, ㅏ, ㅓ, ㅓ, ㅓ’ 등의 6개 단모음과 ‘ㅑ, ㅒ, ㅓ, ㅕ, ㅖ, ㅔ, ㅚ, ㅕ, ㅙ’ 등의 9개

이중모음이 있다. 그리고 운소에는 성조(고조, 저조)와 음장(장음, 단음)이 있다.

2) 어간 말음 ‘ㅍ’, ‘ㅌ’, ㅅ, ㅆ, ㅈ, ㅊ, ㅎ’, ‘ㅋ’는 음절말음제약 때문에 각각 ‘ㅂ’, ‘ㄷ’, ‘ㄱ’로 교체된 다음 미파화규칙의 적용에 의해 다시 [p], [t], [k]로 실현된다. 그런데 이 지역어에서 특이한 것은 표준어에서 ‘ㅊ’ 말음을 지닌 곡용어간들이 모두 ‘ㅌ’ 말음을 지닌 것으로 재구조화되어 평폐쇄음화에 참여하는 점이다.

3)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 지속음화, 순음화, 연구개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는데, 앞의 셋은 조음방법동화에 해당되고, 뒤의 셋은 조음위치동화에 해당된다.

비음화는 비공명성자음이 뒤의 비음을 닮아 비음으로 바뀌고, 유음화는 자음군단순화를 거친 ‘ㄹ’계 자음군(‘ㄹ’, ㄴ, ㅌ, ㅎ)의 ‘ㄹ’에 의해 후행의 ‘ㄴ’가 ‘ㄹ’로 바뀌며, 지속음화는 ‘ㄷ’가 후행 ‘ㅅ’의 영향으로 ‘ㅅ’로 바뀌는 음운과정이다.

순음화는 치경음이나 경구개음이 후행 순음을 닮아 순음으로 바뀌며, 연구개음화는 순음과 치경음이 후행 연구개음을 닮아 연구개음으로 바뀌는 음운과정이다. 그리고 구개음화는 치경음 ‘ㄷ, ㅌ’가 후행 ‘ㅣ’의 전·고설성에 동화되어 경구개음 ‘ㅈ, ㅊ’로 바뀌는 음운과정이다.

4) 자음축약에는 유기음화와 경음화가 있는데, 전자는 ‘ㅎ’가, 후자는 ‘ㅇ’가 후행의 ‘ㄷ, ㅌ, ㅈ, ㅊ’과 축약되어 각각 유기음과 경음으로 바뀌는 음운과정이다.

5) 무성자음으로 끝난 어간에 ‘ㅂ, ㄷ, ㅈ,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면 그 사이에 ‘ㅎ’가 첨가된다. 그리고 활용어간 말음이 ‘ㅁ’일 때와 곡용어간 말음이 ‘ㄹ’일 때도 ‘ㅎ’가 첨가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어미 두음이 ‘ㄷ’일 때만 첨가된다.

6) 자음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음탈락, 유음탈락 등이 있다.

자음군( $C_1C_2$ )단순화는 음절말음제약 때문에 ‘ㄹ’에서는  $C_1$ 이, 그 이외의 자음군에서는  $C_2$ 가 탈락되는 음운과정이고, 후음탈락은 활용어간 말음 ‘ㅎ, ㅇ’

가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되고, 곡용어미 ‘하고’의 ‘ㅎ’가 자음(‘ㅇ’ 제외)으로 끝난 곡용어간 다음에서 탈락되는 음운과정이다. 그리고 유음탈락은 동기관적 음의 연속 회피, 모음간에 세 자음이 올 수 없는 표면음성제약, 동음충돌 등의 원인으로 ‘ㄹ’가 탈락되는 음운과정인데, 앞의 들에서는 음운론적 강도가 탈락 음의 결정에 관여한다.

- 7) 자음축약으로 생성된 유기음과 경음은 중복자음화된다.
- 8) 표준어의 ‘ㅂ, ㅅ’ 불규칙활용에 해당되는 어간들은 이 지역어에서 모두 규칙활용을 하는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러나 ‘ㄷ’ 불규칙활용 어간들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ㄷ’로, 모음어미 앞에서는 ‘ㄹ’로 실현되므로 여기서는 쌍형 어간으로 그 기저형을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알코~알가, 껑코~컹커’처럼 활용하는 어간들도 그 어간 말음이 각각 ‘ㅋ/ㅌ, ㅇ ㅎ/여’인 쌍형 어간으로 그 기저형을 설정하였다.

### 참고 문헌

- 구현옥(1998), 『함안 지역어의 음운 변동 현상』, 한국문화사.
- 전설부 국립지리원(1985), 『韓國地誌 (지방편III)』.
- 김덕호(1992), “경북 상주지역어의 음운 연구,” 『문학과 언어』(경북대)13.
- 김덕호(1997),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적 연구,” 박사논문(경북대).
- 김영송(1974), “경남방언,”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 김영태(1998), 『경남방언과 지명 연구』, 경남대 출판부.
- 김차균(1983), 『음운론의 원리』, 창학사.
- 김택구(1991), “경상남도방언의 지리적 분화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건국대).
- 김한수(1988), “경북 상주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연구,” 석사논문(경희대).
- 민원식(1982), “문경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논문(충북대).
- 박명순(1987), “거창지역어의 음운 연구,” 박사논문(성균관대).
- 박정수(1993), “변동규칙에 의한 경남방언의 분화 연구,” 박사논문(동아대).

- 박지홍(1975), “양산방언의 음운,” 『여문학』(한국어문학회) 33.
- 배병인(1983), “산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논문(고려대).
- 배주채(1998), 「고흥방언 음운론」, 국어학회.
- 백두현(1985), “상주 화북지역어의 음운론적 특징,” 『소당 천시권 박사 환갑 기념 국어학논총』.
- 서보월(1984), “안동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안동문화』(안동대) 5.
- 성인출(1984), “창녕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석사논문(계명대).
- 신승원(1996), “경북 의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분화 연구,” 박사논문(영남대).
- 양산군(1986), 『양산군지』.
- 오종갑(1991), “전라도방언의 자음 음운현상,” 『들메 서재극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오종갑(1994), “19세기 후기 전라도방언의 모음 음운현상과 제약,” 『인문 연구』(영남대) 16-1.
- 오종갑(1997), “유기음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인문연구』(영남대) 19-1.
- 오종갑(1998), “ㅔ, ㅐ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청암 김영태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 오종갑(1999a), “y계이중모음의 변화와 관련된 영남방언의 특성과 그 전개”, 『인문연구』 20-2.
- 오종갑(1999b), “경음화와 영남방언,” 『여문학』(한국어문학회) 67집.
- 오종갑(1999c), “자음탈락과 영남방언,” 『한글』(한글학회) 246.
- 오종갑(1999d), “영남방언의 음운론적 특성과 그 전개,” 『한민족어문학』 35.
- 이상규(1984), “울주지역어의 음운,” 『어문논총』(경북대) 19.
- 이호영(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전광현(1979), “경남 함양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단국대) 9.
- 정인상(1982), “통영지역어의 용언활용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방언』 6.
- 정 철(1991), 『경북 중부 지역어 연구』, 경북대 출판부.
- 최명옥(1998a),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최명옥(1998b), “진양지역어와 김해지역어의 대조연구,” 『청암 김영태 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최임식(1994), 『국어방언의 음운사적 연구』, 문창사.